

6/14/20

설교 제목: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5 장 1-7 절

- (창 15:1)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창 15: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창 15: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아브람은 조카 롯으로 인해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사해 동맹군 간에 발발한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가신 318 명을 데리고 가나안 남부 사해 동맹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후 포로들과 전리품을 취해 돌아가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뒤쫓아가 쳐부수고 롯을 비롯해 그들이 잡아간 포로들과 빼앗아간 전리품들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나게 되었고 주도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과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도취되어 있어야 할 아브람의 마음이 어쩐지 싱숭생숭합니다.

승리의 기쁨과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물밀듯이 몰려오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상태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을 찾아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 15: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람은 어째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람은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비롯한 부녀와 친척들 빼앗겼던 재물들을 도로 찾아왔다는 기쁨에 잠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엘람 그돌라오멜 왕이 이끌고 있었기에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세를 규합하여 보복해 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아브람 자신의 힘만 가지고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난관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지금껏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방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고 하시고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지 어언 10 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땅은 커녕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재물만 좀 모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불현듯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물밀듯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난관을 극복하던 중 문득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과 현실 간에 괴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움에 빠져 들게 되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 14: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 14: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 14: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 14: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 14: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 14: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 14: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 14: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 14: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물 위를 걸을 때는 정말 밀씀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변에 무섭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변을 돌아 보았을 때 주변의 상황이 예수님 보다 더 크게 다가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게 되었고 그러자 베드로는 더 이상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아브람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당시 전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람의 방패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의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브람의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원하는 땅이나 아들이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아브람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소유물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등등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진짜 상급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브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살아있는 관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문제에 전전긍긍 했던 아브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도 머리 속에 들어 오지 않았습시다.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 15: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의 후사를 이어갈 아들의 존재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을 경우 집에서 길리운 종을 양자로 들여 집안을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을 믿음이 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당신이 주셨던 자손 언약을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래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 15: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아브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별까지 직접 보여 주시며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자손에 대해 언약을 받았지만 자신의 나이가 상속자를 찾을 만큼 연로했으며 아내 사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에 후손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언약을 지키는데 있어서 아브람과 사래의 몸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브람과 사래의 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람의 관계입니다.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과 믿음을 발판으로 한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것처럼 아브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자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땅에 대한 언약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사랑과 믿음을 발판으로 한 살아있는 관계가 온전히 정립된 것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 아브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믿음 안에 바로 서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성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아브람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나이 100 세 사래 나이 90 세가 되어도 둘 사이에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람과 사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래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브람에게 이스마엘도 아브람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시며 아내 사래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래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래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일년 뒤 마침내 아브람은 사래와의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통해 아브람의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약 10-15 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이삭을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는 아브람의 태도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나이 100 살이 되어 겨우 얻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독생자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람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 11: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람은 이삭이 죽어도 살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아브람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브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순간 아브람을 말리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창 22: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갈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온전한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습니다.

아브람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믿음을 발판으로 한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 형성을 위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거쳐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화의 기간을 거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